

먼 길을 떠나는 용기: 성숙

“고된 여정에 유혹은 항상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도사린다. 그리고 유혹하는 것들은 언제나 달콤하다. 우리에게 귀를 막을 수 있는 밀랍과 자신을 밧줄로 동여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이유다.”

호메로스의 대서사시 <오디세이아>는 모험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해 가는 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이며 인류 최초의 문학작품이다.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전쟁의 승리자로서 8년을 머문 후에 다시 떠나면 고향으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한다. 이 이야기가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회자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자신을 삶의 경계로 나아가게 하는 도전과 역경, 그리고 용기의 드라마 이기 때문이다. 어쩌면 모험을 갈망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은 수만 년 전 아프리카를 등지고 세계의 대륙으로 뻗어나간 생존의 원동력이기도 했을 것이다.

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이렌이라는 요정들이 살고 있는 섬을 지나야 했다. 하지만 요정들의 아름다운 환영과 노래 소리가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선원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스스로 몸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만다.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단단히 막아 어떠한 소리도 들을 수 없게 하고, 자신은 돛에 밧줄로 단단히 묶은 후 절대 풀지 못하도록 명령한다. 세이렌 섬을 지나는 동안 요정들의 아름다운 환영과 노랫소리에 오디세우스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쳤지만, 부하들은 명령을 지켰고, 배는 무사히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.

우리는 왜 가보지 않은 곳을 그리워하며 먼 길을 떠나는 것일까? 그것은 지금의 나를 넘어서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은 강한 내적 열망 때문일 것이다. 새로운 무엇인가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로 환원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발걸음을 땔 수 있다. 하지만 고된 여정에 유혹은 항상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도사린다. 그리고 유혹하는 것들은 언제나 달콤하다. 우리에게 귀를 막을 수 있는 밀랍과 자신을 밧줄로 동여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이유다.

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? 그것은 분명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방향성과 행동을 유지하는 철학에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철학은 곧 삶이라는 여행 자체의 이유가 된다. 나는 오늘도 그런 삶의 이유를 가지고 떠나는 모험을 하고 있는가? 지금의 나를 벗어나 새로운 나를 찾아 떠나는 모험의 종착지에서 우리는 또 다른 나, 좀 더 '성숙'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.

먼 여행길의 첫걸음을 떼는 것처럼,
2015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, 돛에 자신을 단단히 묶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?

Written by C.E.O James Roh(노상충)

독약은 냄새부터 좋지 않은데 반해, 정신적인 독약은 안타까우리만큼 매혹적으로 보인다. _ 레프 톨스토이

* 세이렌의 유혹적인 목소리는 오늘날 '사이렌'의 어원이 되었다.



James Roh

